

지역 소식통

김제 공무원시험준비반 25명 공직의 꿈 실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6일 운영 중인 지방선학당 공무원 시험준비반이 2024년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 25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격자들은 지난 3월과 6월에 실시된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다양한 직렬에 걸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구체적으로 국가직 4명, 경기도 경력경쟁 1명, 경찰 1명, 지방직 19명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 토목, 지적, 농업, 화공, 전산직 등에서 합격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이기기 위해 전문 학원(주)에듀스와 박문각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전문 강사들의 직접 강의, 체계적인 관리형 독서실 운영, 전 과목에 걸친 동영상 강의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공직 진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공주팔쥐도서관서 9월 문화 프로그램 운영

완주군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공주팔쥐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작가와의 만남, 뮤지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9월 2일부터 30일까지 버려진 책으로 그림책을 만든다의 저자 안선화(팔업놀이 대표) 작가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가족 뮤지컬 별주부 전에 끼어든 인어공주' 공연, 원화전시 등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참여 희망자는 완주군립 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 내에 표시된 모바일 QR 코드 접속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26일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완주군 공주팔쥐도서관(290-2659)으로 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김제시, 제2차 기반시설·내부개발 분야 전략회의... 사업발굴 독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6일 새만금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제2차 기반시설 및 내부개발 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새만금 재수립 추진방향 및 주요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으며, 부서별 주요의견을 수렴하고 2차 사업발굴을 독려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대허브(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MICE) 조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차전지 등의 기업의 수요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해 산업용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 상반기에 제1차 기반시설분야, 내부개발분야 전략회의를 추진하고 6월에 새만금 기본계획 대응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날 새만금 기본계획 대응 발굴사업 17건(기반시설, 내부개발분야)을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하는 등 김제시 미래성장



김제시는 26일 새만금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제2차 기반시설 및 내부개발 분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을 견인할 사업발굴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검토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변경, △용지 정착농원 현업조사 매입, △새만금 심포배수지 조성,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추진 및 산업용지 조 기개발, △새만금 배후도시 조기개발 등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전략회의는 농생명분야, 기반시설분야, 내부개발 분야 3개로 나눠서 각 분야별 1차 회의를 6월까지 완료하고, 농생명분야 2차 회의를 지난 9일에 진행했으며, 오는 9월에는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가 대표 환경축제로 '준비 끝'

김제시, '제2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최종 준비 회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6일 '제2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축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준비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축제장에서 각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들에게 축제장 행동 요령,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이 안내됐으며, 특히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절차를 공유하고,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각 부스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높은 의욕과 결의를 다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어 감사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각자 맡은 바를 철저히 준비하여 김제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는 9월 6~7일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80여개의 다양한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중요한 환경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주요 투자기업 방문 애로사항 해소

김희옥 부시장, 전일목재산업 등 방문 나서... 내달 6일까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희옥 부시장이 26일 전일목재산업(주) (주)한우물을 시작으로 관내 주요 투자기업 현장 방문에 나섰다

지난 7월 1일 취임한 김 부시장은 취임 전,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번 방문도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시장은 이날 각 기업대표로부터 회사의 현황과 비전을 들으며, 생산 현장을 유심히 둘러보고, 시공 및 시음 체험에 참여하는 등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 전문가담계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시종일관 경청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일목재산업(주)대표 김병진)은 원목 수입에서 제재, 가공, 건조, 방부 등 목재에 관한 일관시스템과 30여종의 특허 기술로 고품질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옥 건축과 목조 건축 자재 및 시공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한우물(대표 최정운)은 지난 2006년 농산물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냉동볶음밥 등을 제조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450여 명의 많은 인력을 고용,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김제시는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전북하이텍고-중소, 지역인재 양성 협력 본격

산학협력·인재양성 협약 체결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3일 전북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완주군경제센터 김상식 센터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미원상사(주)·대주코레스(주)·아이큐어(주)·완주공장·다산기공(주) 등 4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취업 협력 및 우수학생 지원 △진로특강 및 취업특강 협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술 교류 및 연구개발 공유 △시설통합 및 기자재 공동 활용 및 지원 △기타 상호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운영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 소재 기업들의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역 산업 현안에 대해 공유했다.

특히, 각 기관은 향후 지식과 기술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지역의 전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3일 전북하이텍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제공)

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뜻을 모았다.

김재천 부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직업계고 학생들의 도내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환경 개선, 구인구직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지원해 지역 일자리 불일치 문제를 극복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완주기업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완주군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하이텍고는 2025학년도부터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칭)'로 전환될 예정으로, 국가 및 지역의 전략산업인 수소융합(수소산업·경제) △에너지융합과(2차전지·에너지) 2개 학과를 신설해 72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지원

완주군이 관내 공동주택 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지원에 나섰다.

26일 완주군은 최근 공동주택 지하층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주민 불안이 커지자 화재 안전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2개소로 지원 물품 구입비의 70%다. 개소당 최대 320만 원을 지원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